

민주노동당 분당협박 '독선넘어 오만방자'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2.01 15:11

국보법 앞에 굴복하고 진보가치 팽개치며 표 얻으려 하나...당비대위 혁신안 문제심각

[사진8]

민주노동당이 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들로부터 최근 당 사태 관련해 호된 질책과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한청 등 4개 대중단체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위기의 민주노동당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 토론회를 가졌다. 4개 단체는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노동당 사태 원인을 진단하고 단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중조직 연대를 통한 지속적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월3일 개최될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혁신안 핵심 쟁점과 이슈에 대한 집중토론이 벌어졌으며, 공동주최 4개 단체와 민주노동당 비대위는 물론 당내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달리하는 발제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전농 정치위원장 이정옥 "민주노동당 비대위혁신안 통일운동에 대한 국민오해 불러"

발제에 나선 이정옥 전여농 정치위원장은 "비대위가 제출한 혁신안은 시간 촉박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내용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불거진 당내 쟁점사안 중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당안팎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 실천해왔던 통일운동에 대한 왜곡과 국민적 오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염경석 "일심회사건 재평가와 판단 요구할 것"

이어진 발제에서 염경석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비대위가 제출한 혁신안에서 제시한 대선 총평과 4년 평가 관련해 ▲노무현 심판론에 의해 여당과 동반 몰락 ▲다자선거구도 대응 미흡 ▲대안 의제화·계급투표 실패 ▲대선과정서 당 단결 실종 등을 지적했다.

또 "당내 민주주의 왜곡 사례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통일운동 노선문제 정리 등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상징적 사건인 일심회사건으로 인해 혼란이 증폭돼 있어 당대회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 판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내 민주주의 왜곡문제, 다수파가 선거를 독점하는 패권주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최선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정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진보정치연구소장 주대환 "민주노동당은 조선로동당 2중대"

이어 주대환 민주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조선로동당 2중대 왜곡된 이미지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그건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고 "'일심회' 사건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대응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 안이 지금 민주노동당 새출발, 재창당, 진보대연합을 통한 진보신당 창당에 앞서 필요한 최소한 조치라고 보고 지지한다"고 비대위 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창현 "분당파들 시대착오적 반복론 내세워"

김창현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자주파'는 시대 요구, 민중 기대에 맞게 민주노동당을 혁신 발전시키지 못했고, 당대열 단합단결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 결과 대선패배를 무한책임 통감해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제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에 대한 총평을 통해 ▲당 위기 진단이 객관적·과학적이지 못하고 ▲'분당론자'들 정치공세를

무분별하게 수용했으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 당원 의견수렴이 결여된 채 성급 줄속으로 만들어졌음을 지적했다.

또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일심회' 사건 관련해 "국가보안법 적용자체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 그 피해자를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떠나 진보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의무인데도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북 인권문제 남북자문제 등은 김대중, 노무현정부조차도 노골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북을 봉기시킬 목적을 가진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이 빼든 칼"이라며 "시대착오적 반복은 한나라당도 내놓고 못하는 것이며 이는 이회창 자유선진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영희 "책임질 조직이 평가에서 빠져"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노동당 비대위 혁신안은 ▲개방형, 민주경선제 부결로 인한 핵심대중들 이반, 진보대연합 실패를 거론하지 않고 ▲선거패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다수 당원들을 정파 조종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며 ▲대중조직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무능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당내 사실관계를 다루는 일심회 사건은 일방적 메카시즘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대선은 자주파와 평등파가 통합적 선대본을 구성해 치렀는데 주요 전략기획단은 평등파가 맡았고 조직은 자주파진영이 주로 진행했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공식 지원단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당과 협의도 되지 않았다"며 "선대본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점은 이러한 선대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지도부가 같이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가에서 빠져 마치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 김인식 "당비대위혁신안 진보원칙 배신"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장은 "현재 문제는 비대위가 당원과 민중들 기대와 소망에 역행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당 지도부가 당 분열안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대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허술하고 진부해 당원들 질문과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정도"라며 "사실 실제조차 없는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해 비대위는 편향적 친북행위로 인해 당 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데 그렇다면 마녀사냥식 제명이 아닌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인식 위원장은 "비대위를 조건없이 지지한 사람으로서 배신감을 느끼며 비대위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심상정 대표는 당을 화끈하고 분명한 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 바꾸려는 것이거나 친북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쪼개자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당 지난 실천은 친북공산주의적인 것이 아닌 고전 사회민주주의적이었고, 권영길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논란 때문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말도 못 꺼내고 무상으로 무상교육을 내세운 것 아니냐"며 "일심회 관련 제명주장은 인기 없다고 느껴지는 국보법 피해자들을 겨냥해 다득표하자는 선거전략인데 국보법에 굴복하면서까지, 진보진영 원칙을 집어던지면서까지 표를 얻어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강력히 공격했다.

전농 부의장 최형권 "종북주의 빨갱이 이미지때문이라고?"

최형권 전농 부의장은 "농사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어 당장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농민들은 민주노동당이 농민들 희망이 되고 중심이 돼서 우리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해주는 정치세력으로써의 면모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농사지을 때 맨 마지막 중요한 일은 쭉정리와 알곡을 잘 골라내는 일이며 위기가 곧 기회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당을 지지하는 대중단체들이 단결해 당에서 똥만도 못한 것들을 골라내고 재도약하길 바란다"며 "다수 의사를 존중하고 결정된 의견에 따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일부 분당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북주의 빨갱이 이미지 때문에 대선에서 당을 찍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청 부의장 박희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 농민당, 청년당 돼야"

박희진 한청 부의장도 "한청도 지난 2001년부터 이적단체 규정을 받고 현재 재판계류 중이고 분단조국 내 진보단체로서 투쟁하고 데모하다 보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유일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서 공안세력보다 더한 논리로 당내 동지들을 매도하고 색깔공세로 밀어붙이며, 신당을 꾸린다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진보운동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분당세력이 당대회 안건으로 올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체제에서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단결하고 혁신해서 진정으로 민주노총당, 농민당, 청년당이 돼야 하며, 평화통일 비전을 내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옥고치르는 당원들을 마녀사냥 하다니">

이날은 방청석에서도 토론에 적극 참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자신을 창당발기인이며 보건의료노조 소속이라고 밝힌 차수련 당원(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보건의료 위원장)은 "최근 당 사태를 지켜보면서 당원입장에서 주체 못할 분노를 느낀다"며 "심상정 대표가 정당 대표연설에서 친북당 운동권정당 민주노총당 정규직당 이미지를 벗고 간다던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고 "일심회 사건으로 찬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내몰아 소명기회조차 안주고 징계하려는 비대위는 독단과 독선을 넘어 오만방자하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방청석 토론은 주로 일심회 사건 관련 비대위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이 많았다.

인천시당남동구위원장은 "일명 '종북'을 내세워 당원 전체를 산산조각 내려는 조치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전 당원 한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당원은 "본인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소명기회를 통해 자신 입장을 밝히고 진실규명 절차가 진행됐다"며 "민주주의적 절차 없이 여론몰이로 개인 정치적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중구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힌 한 당원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두 당원을 처리한다는데 당내 기밀 누설 기준이 뭔지, 어떤 판단에 의해 그런 결정이 났는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조선일보에 블로그를 만들어 당 정보와 인물 등을 누설한 모씨도 있고, 평등파들은 선거당시 검찰 고발을 협박했는데 이는 문제삼지 않고 두 당원에 대해서만 지나친 제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제명관련 건은 안건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비대위 제출한 일심회 제명안건 철회돼야" >

손석춘 원장은 칠레저항시인 파블로 네루다 '나의 당에게' 제하 시 첫 구절인 "그대 덕분에 나는 낯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를 낭송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또 "아래에서 보면 세상이 가장 잘 보인다"라고 한 안병무 선생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고층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투신자살한 여성에게, 여의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맞아죽은 69살 소작농에게, 포스코 앞에서 역시 진압경찰에 맞아죽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아래에서부터 바라본다면 내일모레(2월3일) 개최될 당대회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건물 쪽에 위치한 밀레니엄홀 6층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글=홍미리기자·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